

캡스톤 프로젝트 최종 결과보고서

과 제 명	산업재해 노동자의 직업복귀 형태에 관한 중요 요인 연구		
이름 (학번)	진민준(2022236914)	소속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메일	jinmin1569@nate.com
수행기간	24.03. ~ 24.06.		

목차	I. 초록	2
	II. 서론	3
	III. 분석방법	5
	IV. 분석결과	9
	V. 최종 결과 및 결론	16
	VI. 참고문헌	18

I 초록

산재 근로자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산업재해 보험 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출하는 보험급여액도 증가함으로써 치료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 수도 증가하고 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산재보험패널조사의 2차년도(2019년)부터 5차년도(2022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python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우선 카이제곱 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경제적 지위 형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카이제곱 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집단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혼합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만족도, 심리적인 요인, 재해사업장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현재건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심리사회적인 요인, 재해사업장요인들의 모든 변수는 재취업자, 원직장 복귀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일상생활 만족도 요인들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중 가족의 수입 변수는 재취업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원직장 복귀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주거환경 변수는 원직장 복귀자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재취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가족관계 변수는 두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도 두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 집단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문제없이 직업복귀를 제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서론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복귀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재근로자들이 직장으로의 복귀가 더디어 진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감정에 휩싸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주기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이후 치료를 완료 후 직업에 복귀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직업복귀 형태가 각각 상이할 것이며,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마다 주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복귀 형태에 주요 요인들을 선정하여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직업복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재난, 재해, 질병, 부상 이후의 직업복귀는 일자리 만족도, 사회적인 제도, 개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재해 사업장, 인간관계, 사회환경 사이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게 작용된다.

우선 직업복귀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재취업자는 산업재해를 겪고 난 후, 치료를 종결한후 직장을 다시 복귀할 때 다른직장에 복귀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원직장 복귀자는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종결한 후 산업재해 발생 이전에 다니던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직장 복귀자가 가장 이상적인 집단이다. 원직장 복귀자가 일상생활만족도(이은혜 외, 2017)와 자존감(안준기, 오세미, 2015)이 더 높으며, 우울감(박수경,2013)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종결 후 재취업자인 경우 대체로 고용의 질이 저하된다. 재취업자의 경우 원직장복귀자보다 비정규직의 수가 더 높으며, 재취업자가 원직장복귀자보다 근로소득,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근무 가능성 지속성등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화, 신슬비, 2018)

본 연구의 대상은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의 집단이며, 집단대상자들을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추적 관찰을 진행하였다. 치료가 종결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만족도 요인, 심리적 요인, 인간생활적인 요인, 재해사업장 요인이 직업복귀 형태별로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산재근로자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2. 종사상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직업복귀형태와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3.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I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중 2차 코호트의 제2차(2019년)에서 제5차(2022년)까지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년도 모두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총 2,5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은 Pyth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제2차 연도에서 제5차 연도까지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제활동 유형은 3가지 범주(원직장 복귀: 2, 재취업: 1, 미취업:0)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미취업으로 분류했다.

(2) 독립변수

(2-1) 일상생활 만족도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독립 변수	일상생활 만족도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 1 중상층 = 2 중하층 = 3 하층 = 4
		일상생활 만족도-가족수입	매우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 불만족 =4
		일상생활 만족도-주거환경	매우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불만족=4
		일상생활 만족도-가족관계	매우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 불만족 =4

일상생활 만족도 변수 요인은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 만족도-가족수입, 일상생활만족도-주거환경, 일상생활만족도-가족관계로 구성했다.

사회경제적지위는 원래 데이터에서 해석에 회귀식에 적합하게 역코딩하여 4가지로 범주화했다. 가족의 수입 또한 역코딩하여 5가지 척도로 범주화 했다. 마

찬가지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또한 역코딩하여 5가지 척도로 범주화 했다.

(2-2) 재해 사업장 요인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독립 변수	재해사업장 요인	요양 기간
		3개월 이하=1, 3개월 초과~6개월 이하=2, 6개월 초과~9개월 이하=3, 9개월 초과~1년 이하=4, 1년 초과~2년 이하=5, 2년 초과=6
		노동조합 유무
		노조 있음=1, 노조 없음=0
		산재 요양 중 고용주 혹은 인사담당자와의 관계유지 여부
		관계유지=1, 관계유지 없음=0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1

재해사업장 요인은 종사상 지위, 산재 요양 중 고용주 혹은 인사담당자와의 관계유지 여부, 노동조합 유무, 요양 기간으로 구성되었다.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1 정규직(상용직 근로자):0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하지만 다항로지스틱 모델에서는 배제 했다.

(2-3)심리적인 요인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독립 변수	심리사회적 요인	자기효능감
		1-5(23문항 평균값)
		현재 업무수행능력
		완전 상실=0, 10점=10
		산재의 영향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1, 많은 영향을 미침 =2 보통 =3 약간 영향을 미침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5
		사회적 교류
		1-5(3문항 평균값)

심리적인 요인은 자기효능감,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의 영향, 사회적 교류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지신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대인 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23문항이 존재해 평균값을 통해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업무수행능력은 11개의 척도로 구성된다.(완전 상실:0점 ~ 완전회복됨:10점). 산재의 영향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통증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발생하는 불편함의 정도의 문항을 활용하여 기존의 데이터에서 역코딩하여 5개의 척도로 구성했다. 사회적 교류는 친척, 이웃, 친구 3가지 항목을 하

나의 평균값으로 활용하였다.

(2-4) 인구사회학적 요인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자=1, 여자=2
		연령대	30대 이하=1, 40대=2, 50대=3, 60대 이상=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자격증 개수	자격증 개수(연속변수)
		장애등급	무장애=0, 13~14급=1, 10~12급=2, 8~9급=3, 4~7급=4, 1~3급=5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장애등급, 자격증 개수, 배우자 유무, 연령대, 성별로 구성 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경우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으로 혼인상태를 배우자 있음으로 미혼, 별거, 이혼, 사별등은 배우자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자격증 개수는 자격증 보유한 개수를 의미하며, 장애등급은 기존의 데이터에서 무장애=0, 1~3급은 5로 장애의 정도를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역코딩하였다.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지정하였다.

(2-5)현재 건강요인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독립 변수	현재 건강요인	흡연여부	1. 피운다 2. 피우지 않는다
		음주여부	1. 마신다 2.마시지 않는다
		하루 운동시간	연속변수
		하루 수면시간	연속변수

현재 건강요인은 하루 수면시간, 하루 운동시간, 음주여부, 흡연여부로 구성하였다. 흡연여부는 피운다(=1), 피우지 않는다(=2) 그리고 음주여부는 마신다(=1), 마시지 않는다(=2)로 구분 지었고 운동시간과 수면시간은 수치 그대로 연속변수로 지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구의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하층~상층)에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했고,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단에 따라 직업복귀 유형(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미취업자)에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사용가능한 조건은 종속변수가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비순서형 범주형 변수이고 종속변수가 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미취업자로 세 개이상의 범주가 존재하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해석 방법은 특정한 기준유형을 정하여 특정 유형 대비 다른 유형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종속변수 유형별로 독립변수의 유형들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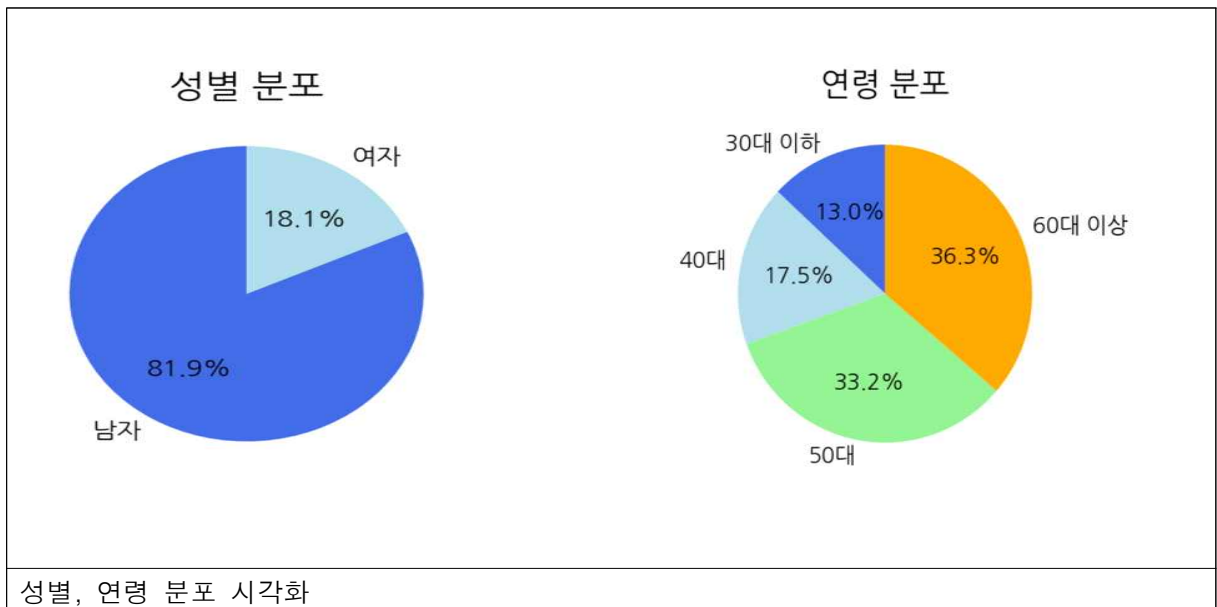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4-1)산업재해 근로자의 정보(총 257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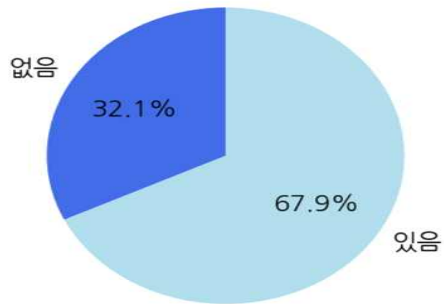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표1>는 산재근로자 2573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이다. 우선은 성별분포는 남성이 2107명(81.9%) 여성이 466명(18.1%)으로써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335명(13%) 40대가 451명(17.5%) 50대가 853명(33.2%) 60대 이상이 934명(36.2%)로써 50대 이상이 70%에 육박한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이 1748명(67.9%) 배우자 없음이 825명(32.1%)로 배우자 있음이 1748명(67.9%)가까이 차지했고, 장애등급은 무장애가 479명(18.6%)을 차지했고, 13~14급은 823명(32%)를 차지했으며, 10~12급은 718명(27.9%)를 차지했고, 8~9급은 272명(10.6%)를 차지했으며, 4~7등급은 214명(8.3%)를 차지했고, 1~3급은 67명(2.6%)를 차지했다. 심각한 장애등급(1~3등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치료기간은 3개월 이하인 사람은 461명(17.9%)이고,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는 953명(37%)이고, 6개월 초과~9개월 이하는 576명(22.4%)를 차지했고, 9개월 초과 ~ 1년 이하는 190명(7.4%)를 차지했고, 1년 초과 ~ 2년 이하는 245명(9.5%)을 차지했다. 2년 초과는 148명(5.8%)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절반이상 사람들의 치료기간은 6개월 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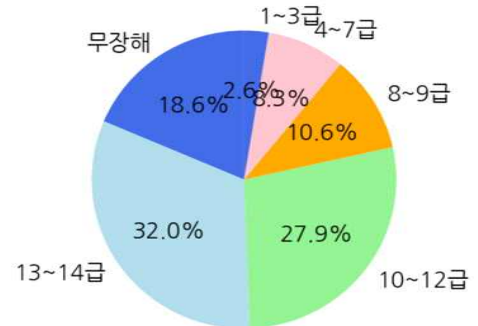
데이터탐색 및 시각화



배우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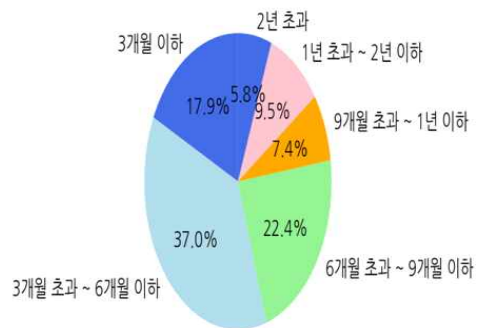


장애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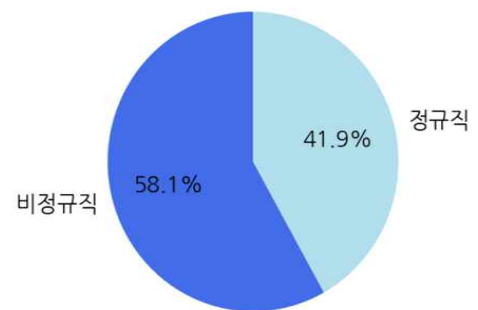


배우자, 장애등급 분포 시각화

치료기간 분포



종사상 지위 분포



치료기간, 종사상 지위 분포 시각화

<표1>산업재해 근로자의 정보

	변수	값	빈도	퍼센트
0	성별	남자	2107	81.9
1	성별	여자	466	18.1
2	연령대	30대 이하	335	13.0
3	연령대	40대	451	17.5
4	연령대	50대	853	33.2
5	연령대	60대 이상	934	36.3
6	배우자	없음	825	32.1
7	배우자	있음	1748	67.9
8	장해등급	무장해	479	18.6
9	장해등급	13~14급	823	32.0
10	장해등급	10~12급	718	27.9
11	장해등급	8~9급	272	10.6
12	장해등급	4~7급	214	8.3
13	장해등급	1~3급	67	2.6
14	요양 기간	3개월 이하	461	17.9
15	요양 기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953	37.0
16	요양 기간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576	22.4
17	요양 기간	9개월 초과 ~ 1년 이하	190	7.4
18	요양 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245	9.5
19	요양 기간	2년 초과	148	5.8
20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1494	58.1
21	종사상 지위	정규직	1079	41.9

<표 2>는 4개의 조사년도에 걸쳐 재해 당시에 종사상 지위(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하층,중하층,중상층,상층)를 구분하고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상층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중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표 2> 컬럼에 상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은 관찰된 빈도의 재해 당시 종사상지위와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이라는 가정하에서 빈도 사이의 차이를 측정한다.

4개 조사년도 모두 카이제곱 통계는 $p<0.0001$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종사상 지위와 사회경제적 지위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별할 수 있다. <표 3>는 4개의 조사년도에 걸쳐 재해 당시에 종사상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직업복귀형태(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를 구분하고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4개 조사년도 모두 카이제곱 통계는 $p<0.0001$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종사상 지위와 직업복귀 형태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별할 수 있다.

<표2>종사상 지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카이제곱 독립성검정

사회경제적 지위	조사연도	구분	총합	중상층	중하층	하층	카이제곱검정결과
0	1차	비정규직	1494.0	124.0	932.0	438.0	88.4123(6.331612048098945e-20)
1	1차	정규직	1079.0	42.0	534.0	503.0	88.4123(6.331612048098945e-20)
2	2차	비정규직	1494.0	132.0	934.0	428.0	67.0782(2.717388931395744e-15)
3	2차	정규직	1079.0	46.0	568.0	465.0	67.0782(2.717388931395744e-15)
4	3차	비정규직	1492.0	123.0	943.0	426.0	55.2079(1.0274244873897088e-12)
5	3차	정규직	1079.0	48.0	580.0	451.0	55.2079(1.0274244873897088e-12)
6	4차	비정규직	1493.0	140.0	932.0	421.0	39.0343(3.340545212078756e-09)
7	4차	정규직	1079.0	56.0	607.0	416.0	39.0343(3.340545212078756e-09)

독립성 검증 결과

<표3>종사상 지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카이제곱 독립성검정

사회경제적 지위	조사연도	구분	총합	중상층	중하층	하층	카이제곱검정결과
0	1차	비정규직	1494.0	124.0	932.0	438.0	88.4123(6.331612048098945e-20)
1	1차	정규직	1079.0	42.0	534.0	503.0	88.4123(6.331612048098945e-20)
2	2차	비정규직	1494.0	132.0	934.0	428.0	67.0782(2.717388931395744e-15)
3	2차	정규직	1079.0	46.0	568.0	465.0	67.0782(2.717388931395744e-15)
4	3차	비정규직	1492.0	123.0	943.0	426.0	55.2079(1.0274244873897088e-12)
5	3차	정규직	1079.0	48.0	580.0	451.0	55.2079(1.0274244873897088e-12)
6	4차	비정규직	1493.0	140.0	932.0	421.0	39.0343(3.340545212078756e-09)
7	4차	정규직	1079.0	56.0	607.0	416.0	39.0343(3.340545212078756e-09)

독립성 검증 결과

(4-3) 직업복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년 패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종속변수는 미취업자, 재취업자, 원직장 복귀자로 구성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는 미취업자를 준거집단으로 지정하여, 미취업자 대비 재취업자 및 원직장 복귀자 확률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나이는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취업할 확률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배우자 유무는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취업할 확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재취업자(Odds ratio:1.35), 원직장(Odds ratio:2.44)) 또한 자격증개수는 재취업자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Odds ratio:1.66)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변수는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취업할 확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재취업자(Odds ratio:1.94), 원직장(Odds ratio:1.89)) 또한 현재업무수행능력도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취업할 확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재취업자(Odds ratio:1.19), 원직장(Odds ratio:1.35))

재해사업장 요인으로 요양기간 변수는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취업할 확률이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재취업(Odds ratio:0.77), 원직장복귀자(Odds ratio:0.78)) 노동조합 변수는 재취업자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지만 원직장복귀자(Odds ratio:4.71배)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산재 요양 중 고용주 혹은 인사담당자와의 관계유지 여부 변수는 재취업자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지만 원직장복귀자(Odds ratio:0.25배))로 취업할 확률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일상생활만족도 요인으로 사회경제적지위 변수는 재취업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지만 원직장복귀자(Odds ratio:1.27배)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족의 수입 변수도 직업복귀 형태와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다.(재취업(Odds ratio:1.87배),원직장 복귀(Odds ratio:1.99배))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주거환경은 원직장복귀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지만 재취업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취업 확률이 낮았다.(Odds ratio:0.79) 가족관계는 직업복귀 형태와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고(재취업(Odds ratio:0.81배), 원직장복귀(Odds ratio:0.78배))로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현재건강요인으로 흡연여부 변수는 직업복귀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재취업(Odds ratio:0.60배), 원직장복귀(Odds ratio:0.59배)로 취업 확률이 낮았다. 수면시간 변수도 직업복귀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재취업(Odds ratio:0.91배),원직장복귀(Odds ratio:0.88배))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표4>직업복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p-value	exp(B)-재취업자	B	p-value	exp(B)-원직장
0	gender	-0.0718	0.599	0.930717	-0.2340	0.184	0.791362
1	age	-0.2852	0.000	0.751864	-0.5451	0.000	0.579784
2	spouse	0.3011	0.010	1.351344	0.8924	0.000	2.440981
3	num_certi	0.1536	0.001	1.166024	-0.0891	0.172	0.914754
4	disa	0.0272	0.594	1.027573	0.0775	0.215	1.080582
5	self_effi	0.6673	0.000	1.948968	0.6382	0.000	1.893070
6	cur_ability	0.1799	0.000	1.197098	0.3072	0.000	1.359613
7	accident_impact	-0.0593	0.176	0.942424	-0.0755	0.180	0.927280
8	social	-0.0535	0.649	0.947906	-0.1352	0.408	0.873541
9	treat_period	-0.2612	0.000	0.770127	-0.2446	0.000	0.783018
10	union	-0.3559	0.134	0.700543	1.5511	0.000	4.716656
11	connection	-0.0093	0.925	0.990743	-1.3750	0.000	0.252840
12	society_economy_position	-0.1555	0.117	0.855987	0.2464	0.046	1.279411
13	family_income	0.6266	0.000	1.871238	0.6910	0.000	1.995710
14	house_environ	-0.2350	0.005	0.790571	-0.0819	0.451	0.921364
15	family_relation	-0.2056	0.010	0.814159	-0.2407	0.025	0.786077
16	smoke	-0.5087	0.000	0.601277	-0.5200	0.001	0.594521
17	alcohol	-0.1341	0.195	0.874503	-0.2435	0.063	0.783879
18	exercise	-0.0348	0.529	0.965799	0.1044	0.113	1.110044
19	sleep	-0.0932	0.015	0.911011	-0.1226	0.024	0.884617

혼합 다항로지스틱 모형 결과

V 최종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별로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연령($p<0.05$), 배우자유무($p<0.05$), 자격증갯수($p<0.05$)-재취업자만 해당하고 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미취업자 대비 재취업과 원직장복귀로 복귀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존재할수록 미취업자 대비 재취업할 확률이 1.35배 증가했고 원직장복귀자는 2.44배 증가했다. 자격증갯수는 미취업자 대비 재취업복귀할 확률이 1.16배 더 높았다.

심리적인 요인의 경우 자기효능감($p<0.05$), 현재업무수행능력($p<0.05$), 치료기간($p<0.05$), 노동조합유무($p<0.05$)-원직장복귀자만 해당(크게), 사회적 교류($p<0.05$)-원직장복귀자만 해당하고 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미취업자 대비 재취업할 확률이 1.94배 높고, 원직장 복귀할 확률은 1.89배 높았다. 또한 현재업무수행능력은 미취업자 대비 재취업할 확률이 1.19배 높았고, 원직장복귀할 확률은 1.35배 증가했다. 또한 치료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으로 미취업자 대비 재취업할 확률과 원직장 복귀할 확률이 더 낮아졌다. 또한 노동조합 변수는 미취업자 대비 원직장복귀 할 확률이 4배이상이 되었다.

일상생활 만족도 요인의 경우 현재 사회경제적지위($p<0.05$)-원직장복귀자만 해당, 주거환경($p<0.05$)-재취업자만 해당, 가족관계($p<0.05$) 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사회경제적지위변수는 미취업자 대비 원직장복귀할 확률이 1.27배 증가했다.

현재건강요인의 경우 흡연여부($p<0.05$), 하루 수면시간($p<0.05$) 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분석을 진행 한 후, 분석의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시 취약성, 중요 요인들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배우자유무는 취업에 유리한 요인이 되며, 나이는 많을수록 취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리 사회적인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과 업무수행능력이 취업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해사업장 요인으로 치료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자리 만족도 요인으로 가족의 수입은 취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현재 건강요인으로 흡연 유무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 요

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산재근로자들에게 각각 직업복귀 형태별로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정책을 시행할때에는 직업복귀 형태별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성별로 획일화된 지원이 아니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는, 각각 성별로, 나이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대부분 산재근로자가 남성이고, 50대이상인 사람이 70%를 차지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성별, 나이별, 직업별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 후, 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VI 참고문헌

1. 직업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일자리만족 영향요인에 연구(김혜영, 박소연, 이숙정)
2. 지속되는 힘든 삶: 산재근로자의 차별적 노동 불안정(정형안, 고다현)
3.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입사경로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인적자본과 주관적 업무수행능력의 조절효과(홍종윤)
4. 산재보험패널을 이용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이직의사 영향요인(최령, 황병덕)